

일반 논문

## 한국 청년세대의 중국 및 일본 인식

: 국내 언론 보도의 사실 정합성 검토를 중심으로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국문요약

이 논문은 한국 청년세대의 중국 및 일본 인식과 관련된 언론 보도의 사실 정합성 여부를 학술기관의 장기조사데이터(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2007-2022)』, 동아시아연구소와 켄론NPO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2013-2021)』)를 통해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세대의 반중 정서는 한국 사회 전반의 추세와 시기적, 경향적으로 일치하며, 정도에 있어서도 기성세대와 극적인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중국 비호감도가 20대에서 두드러지고 일관되게 나타났다면, 30대에서는 개인적 감정과 중요도를 분리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세대 간 차이는 언론 보도보다 작고, 세대 내 차이는 그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대와 30대 모두 일본 호감도가 한국인 평균보다 높았다. 20대에서 그 정도가 크고 일관되게 드러났다면, 30대는 20대와 평균 사이에 위치했다. 하지만 높은 호감도에도 역사·정치문제에 있어서는 기성세대보다 강경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한 경우가 빈번해 '투트랙 전략'을 일상 속에 선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학술기관의 장기조사데이터를 통한 검증결과는 미디어가 파악한 현실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며, 이 괴리를 유발하는 세대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청년세대, 2030세대, 중국 인식, 일본 인식, 통일의식조사,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 I. 서론: 한국 청년세대, 반중 친일의 전위부대?

최근 한국 사회는 청년세대 또는 MZ세대의 소비 패턴, 정치 성향, 문화 지향의 특성과 파급력에 주목해왔다. 그 연장선에서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한국 청년세대의 주변국 인식, 특히, 중국과 일본 인식의 특수성에 대한 기사가 언론을 통해 다수 발표되었다. 그에 따르면, 한국 청년세대는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한다”고 할 정도로 기성세대보다 중국을 훨씬 더 싫어하며,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우호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 내 반중(反中) 정서의 급속한 확산이 목도되는바 이를 견인한 주요 세력이 청년세대라면, 일본의 경우 바로 같은 집단이 반일 감정의 완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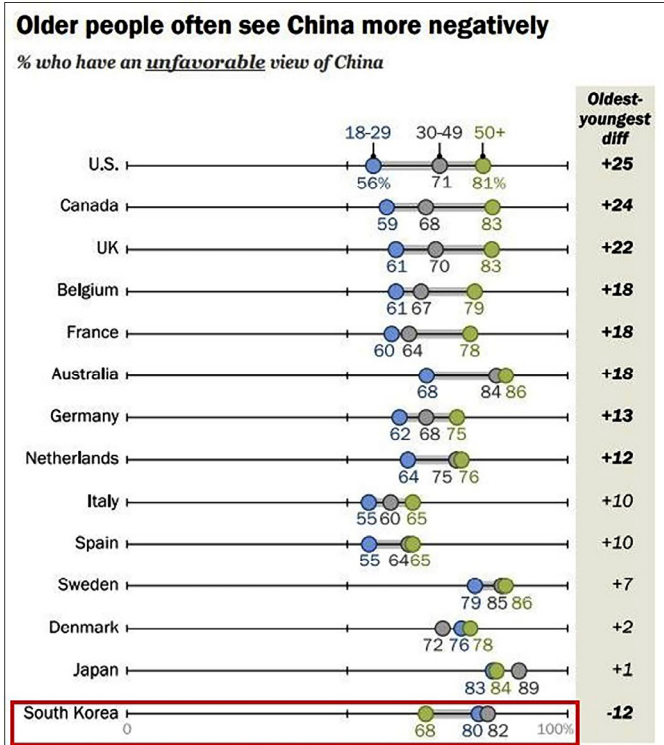
1) 대표적인 언론 보도는 다음과 같다. 이오성,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 누굴까」 『시사IN』 (온라인), 2021년 6월 17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21>>; 김서윤, 「586은 반미, 우리는 반중! MZ세대의 중국 혐오를 키운 것은?」 『주간조선』 (온라인), 2021년 5월 24일,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76>>; 유지혜, 정진우, 박현주, 「2030 열명 중 여섯 “中 싫다”...미래세대 반중감정 치솟았다」 『중앙일보』 (온라인), 2021년 1월 19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1759>>; 조영빈, 「한중수교 30주년: 한국·중국은 왜 서로를 더 싫어하나...양국 MZ에 물었다」 『한국일보』 (온라인), 2022년 8월 23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523100002978?did=DA>>; 권민지, 「가장 싫은 나라 중국, 북한은 남...MZ세대 모든 것」 『국민일보』 (온라인), 2021년 6월 25일, <<http://news.kn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7855&code=11131100&cp=du>>; 조영빈, 「한국인, 日 가장 혐오' 통념 깨진다...2030세대 “中이 더 싫다”」 『한국일보』 (온라인), 2021년 6월 14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1311510002670?did=DA>>; 박현주, 「한국인 “일본 싫다” 8%p 줄고 “중국 싫다” 14%p 증가」 『중앙일보』 (온라인), 2021년 9월 29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0516>>; 최은미, 「MZ세대와 韓·日관계」 『세계일보』 (온라인), 2022년 1월 6일,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106515175?OutUrl=dau m](https://www.segye.com/newsView/20220106515175?OutUrl=dau%20m)>.

예를 들어 <시사IN>의 2021년 6월 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주변 4개국(미·중·일·북) 중 최하위로 일본이나 북한보다도 낮았다. 진보와 보수, 남과 여, 소득수준의 차이를 막론하고 “한국이 반중으로 푹푹 뭉친 상황”이다. 이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세대별 특성으로, 20대의 중국 호감도(15.9)는 50대(30.8)와 60대(31.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평균(26.4)보다도 10%p 이상 낮았다. 30대의 경우(21.8)도 5, 60대보다는 10%p, 평균보다는 5%p 정도 낮았다. 같은 해 6월 국민일보의 보도에서도 MZ세대(18-39세)의 51.7%, Z세대(18-24세)의 60.3%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중국”을 꼽았다.<sup>2)</sup>

실제로 미국의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역시 비슷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퓨리서치센터는 2007년부터 전세계 14개국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 변화를 추적해왔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14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9개국에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정점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다른 나라 국민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중국을 더 싫어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나이가 어릴수록 중국에 더 부정적인 ‘유일한’ 나라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조사결과와 국가별 세대 분포를 나타낸 도표가 이를 선명하게 가시화한다(〈그림 1〉). 한국의 20대와 3,40대의 중국 비호감도는 50대 이상의 경우보다 10%p 이상 높았다.

2) 이오성, 위의 기사; 권민지, 위의 기사.

〈그림 1〉 중국 비호감도 국가별 세대 분포 (2020)



출처: Pew Research Center, “Unfavorable Views of China Reach Historic Highs in Many Countries” (October 2020), p. 10.

한편, 대일(對日) 인식과 관련해 한국일보의 2021년 6월 보도에 따르면, 40대 이상의 일본 호감도가 중국 호감도보다 여전히 낮다면, 20대와 30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즉, 기성세대가 아직도 중국보다 일본을 더 싫어한다면, 청년세대는 중국을 더 싫어하는 것이다. 특히 20대의 일본 호감도(30.8)는 중국 호감도(17.1)의 거의 두 배에 달하며, 2030 모두에 있어 주변국 중 중국의 비호감도가 가장 높았다.<sup>3)</sup>

국내 언론의 이와 같은 보도는 어느 정도로 사실에 부합하는가. 실제로 격렬한 반중 정서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2030, 또는 MZ세대에 모두 적용되며, 그들은 정말로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것’일까. 또,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청년세대의 일본 호감도가 사실이라면, 역사나 정치 문제는 어떨까. 높은 호감도가 역사와 정치 영역에도 비례 적용될까, 아니면 높은 호감도는 역사나 정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무관심의 결과인 걸까. 이 논문은 이에 대한 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즉, 주로 단기 설문조사에 기반한 국내 언론 보도의 사실 정확성 여부를 학술기관의 장기 설문 데이터를 통해 통계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IPUS)이 2007년부터 15년간 실시해온 『통일인식조사(2007-2022)』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일본의 켄론 NPO와 2013년부터 시행해온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2013-2021)』를 분석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sup>4)</sup>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먼저, 청년세대의 분류는 M세대와 Z세대가 아닌 20대와 30대로 하였다. M과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서의 비교 세대적 특성을 공유한다. ‘디지털 네이티브’란 ‘컴퓨터, 휴대폰, 인터넷, 비디오게임, 음악재생기, 비디오카메라 등 각종 디지털 기기를 일상적으로 접하며 디지털 언어를 원어민처럼 체득한 사람’을 뜻하며, 2001년 미국의 교육학자인 프렌스키(M. Prensky)가 새로운 학생 세대를 특화해 처음 고안한 개념이다.<sup>5)</sup>

3) 조영빈, 「한국인, 日 가장 혐오’ 통념 깨진다…2030세대 “中이 더 싫다”」.

4) 관련 선행연구로는 차정미(2017), 오승희(2020; 2022), 석주희(2020), 윤석정(2020), 조은일(2020), 조의형(2022), 하남석(2022), 김정은(2022)이 존재하나, 1) 중국이나 일본 인식 중 하나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거나 (모두 해당), 2) 특정 주제에 한정되거나 (김정은), 3) MZ세대가 아닌 한국인 전체의 인식을 대상으로 삼거나 (차정미), 4) 한국이 아닌 중국과 일본 MZ세대 연구 (하남석; 오승희 2022)라는 점에서 이 연구와 구별된다. 자세한 서지사항은 참고문헌 참조.

5) M. Prensky,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1” On the Horizon, vol. 9, no. 5 (2001), pp. 1-3.

두 세대가 'MZ세대'로 통칭될 수 있는 주된 근거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양자 간에는 표준화될 수 없는 차이 역시 존재한다. 보다 엄밀한 기준을 적용할 때, M세대는 '인터넷 세대'이자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으로, Z세대는 '아이폰 세대'이자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으로 구분되며, M세대는 인터넷 환경이, Z세대는 모바일 환경이 대중화 되던 시기 성장기를 보낸 세대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MZ세대'로 통칭될 경우 대상연령이 10대에서부터 40대까지로 지나치게 포괄적인 점도 이와 유관하다. 이처럼 특성에 있어서나 대상에 있어 M과 Z세대가 분리 고찰될 필요가 존재함에도, 현재까지 양 세대를 분류하는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국가나 기관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일례로, M세대와 Z세대를 한국 통계청은 각각 '1980-1994 출생자'와 '1995-2005 출생자'로, 미국의 퓨리서치센터는 '1981-1996 출생자'와 '1997-2012 출생자'로, 유럽은 '1985-2001 출생자'와 '2001-2020 출생자'로 각각 다르게 분류한다. 나라마다 디지털 환경의 시차가 존재함을 감안하여 대상을 한국 내로 한정하더라도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sup>6)</sup> 이에 더해, 본고의 분석대상이 될 2종의 데이터를 M과 Z세대로 분류할 경우, Z세대의 표본크기가 너무 작아 M세대와의 유의미한 비교가 불가능하다. 청년세대를 M과 Z세대가 아닌 20대와 30대로 분

6) 박시내, 박혜균, 「MZ세대의 생활 환경: 생활비 원천, 주거실태」, 『KOSTAT 통계플러스』 Vol. 17 (2022 봄호), 33쪽; 양승훈, 「MZ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철학과현실』 제132호 (2022), 78~87쪽; 박치완, 「세대론의 르네상스와 '디지털 원주민' 세대의 이해」 『문화콘텐츠연구』 제16호 (2019), 11~32쪽; 오기성, 「MZ세대 통일의식 제고 방안 연구」 『평화학연구』 제23권 2호 (2022), 80~86쪽; 김성희, 「세대 간 통일의식 차이」 『기रो에 선 평화, 다시 묻는 통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2 통일의식조사 학술회의 (2022년 9월 27일), 108쪽; 김효정, 『MZ세대가 쓴 MZ세대 사용설명서』 (서울: 넥서스BIZ, 2022), 6~38쪽 참조.

류한 것은 이상에 근거한다.

다음으로 동일 집단의 시기적 변화를 추적 조사한 패널 데이터(panel data)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특성이 시간 가변적 ‘연령효과(age effect)’인지, 시간 불변적 ‘코호트효과(cohort effect)’인지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는 점도 미리 밝힌다. ‘연령효과’란 사회적, 생물학적 성숙 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예를 들어 급진적 성향의 젊은 세대가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되는 경향이 대표적이다. ‘코호트효과’는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화 경험을 통해 형성된 특정 코호트가 공유하는 특성으로, 청년기에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그룹이 진보적 성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sup>7)</sup>

하지만 두 효과의 식별 불가능성은 보다 근본적으로 세대 개념(generation) 자체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 세대 개념의 학적 용례는 1) ‘부모세대’나 ‘자식세대’ 같은 ‘친족계보(kinship descent)’, 2) 동일시기 출생집단을 의미하는 ‘출생코호트(birth-cohort)’, 3) ‘2030세대’, ‘실버세대’ 같은 ‘생애주기(life stage)’, 4) ‘전후(戰後)세대’, ‘민주화세대’ 같은 ‘특정 역사시기(historical period)’의 생존그룹 개념 등 다양한 정의를 포괄한다.<sup>8)</sup> 즉, 패널 데이터의 존재 여부에 앞서 세대 개념 자체의 이러한 다의성과 모호성으로 인하여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 간 구별의 어려움이 야기되는 보다 근원적인 차원이 존재함 역시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7) 전상진,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세대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제38집 5호 (2004), 37쪽.

8) D. Kertzer,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9 (1983), pp. 126-127.

## II. 한국 청년세대의 중국 인식: 20대와 30대의 통약 불가능성

특정국 국민의 주변국 인식은 정치, 경제, 역사, 사회문화를 두루 포괄하는 양국 간 외교 관계와 직접적 함수관계에 놓인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1992년 역사적인 한중수교 이후, 한국인의 중국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2004년 중국 정부가 진행한 대규모 역사프로젝트인 동북공정,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응한 중국의 경제 보복, 2020년의 중국발 코로나 팬데믹을 들 수 있다. 한중수교 이후 한국인의 중국 우호도가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면, 후자의 세 사건, 즉 역사-문화 충돌로서 동북공정, 경제-안보 갈등으로서 사드 사태, 보건-건강 위기로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인의 반중 정서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동북공정은 이후 김치나 한복 등 전통문화의 기원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으로 양국 사회 내 확대 심화되었고, 중국발 황사나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위생 문제가 일상화된 갈등의 근원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더해 중국 고유의 정치체제(일당독재)나 대만, 홍콩, 티벳, 신장-위구르 문제와 연계된 민주주의 및 인권 이슈 역시 한국인의 중국 인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수에 해당한다.<sup>9)</sup>

열거한 역사적 사건이나 이슈들은 한국인의 중국 인식에 일종의 기간 효과(period effect)로, 즉 세대 불문, 모든 연령대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효과로 작용하였다.<sup>10)</sup> ‘한국인의 중국 비호감도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sup>9)</sup> 한중수교 후 한국인의 중국 인식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차정미,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변화와 그 요인」 『아세아연구』 제60권 2호 (2017), 11~14쪽, 31~41쪽; 조의행, 「MZ세대의 반중감정: 그 현황과 전망」 『역사와융합』 제10집 (2022), 176~180쪽 참조.



아래 그래프가 이를 잘 보여준다.<sup>11)</sup>

〈그림 2〉 한국인의 중국 비호감도 변화 (2007-2020)



출처: Pew Research Center, “Unfavorable Views of China Reach Historic Highs in Many Countries,” p. 9.

2004년 동북공정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던 한국인의 중국 비호감도는 2012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개선된 한중관계의 영향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 사드 보복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 61%까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75%까지 치솟는다. 후자의 수치는 비호감도가 가장 낮았던 2015년 수치(37%)의 두 배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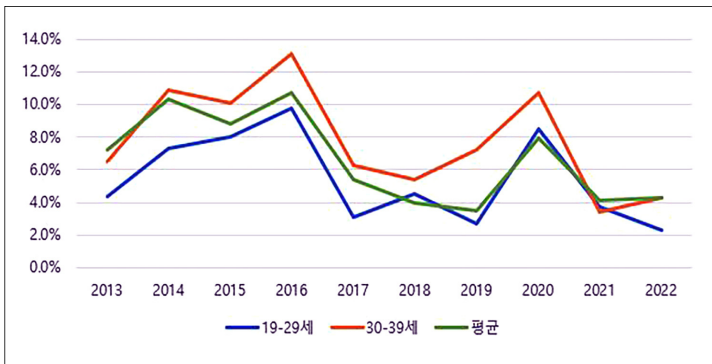
그렇다면 세대별 특성은 어떨까. 서론에서 밝혔듯이, 퓨리서치센터 및 한국 언론의 주장의 핵심은 청년세대의 특성이 위와 같은 기간효과의 보편성을 과다 초과하는 강도로 구성된다는 데 있다. 즉, 한국 2030세대의

10) ‘기간효과’는 특정 관찰 시점에 일어난 상황이나 사건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차이로, 모든 연령, 모든 코호트에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반중 정서의 급증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박재홍,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제24권 2호 (2001), 55쪽.

11) 〈그림 2〉는 Pew Research Center 보고서에 제시된 표를 필자가 그래프화한 것이다.

중국 비호감도는 기성세대를 큰 폭에서 넘어서며, 특히 20대의 호감도는 기성세대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실시된 단기조사에 기반한 주장들이다.<sup>12)</sup> 이를 학술기관의 장기조사결과와 비교해보자. 다음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중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로 “중국”을 선택한 (10년간의) 연도별 비율을 연령별로 나타낸 그래프다.

〈그림 3〉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중국” 선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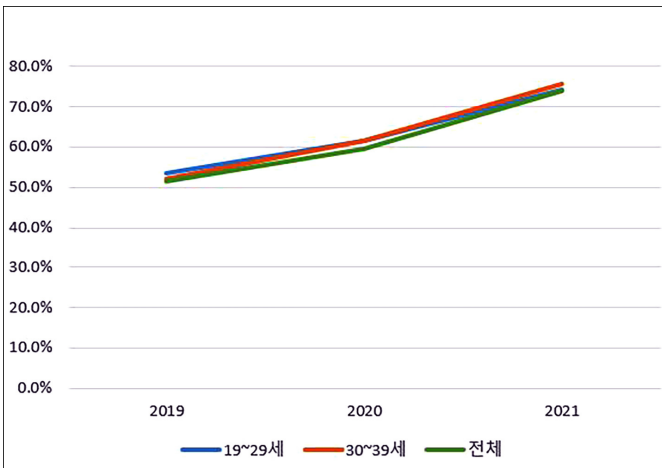


그래프에 따르면 20대는 10년에 걸쳐 중국 친근감이 한국인 평균보다 낮거나, 가장 양호한 경우가 평균 정도에 머무는 수준이다. 즉, 언론보도 처럼 기성세대보다 중국에 부정적이며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그렇다. 하지만 30대는 다르다. 20대처럼 30대도 코로나 이후 중국에 대한 친근감이 급감했지만, 그 이전엔 한국인 평균보다 높은 친근감을 보였고, 코로나 후 급감 상황도 현재 평균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sup>12)</sup> 퓨 리서치 센터의 중국 비호감도 조사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세대별 비율은 2020년 한 해의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 조사는 주변 5개국(미·중·일·러·북)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라, 다른 나라에 대한 태도가 중국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압도적 다수의 한국인(50-70%)이 가장 가까운 나라로 미국을 선택하기에, 이를 제외한 잔여%를 나머지 4개국이 나누는 상황이어서 변량 자체도 매우 작다. 즉, 변수의 독립성, 변량의 크기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동아시아연구원 조사 중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중국에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가?”)을 활용해 “중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비율을 코로나 전후(2019-2021)로 비교해보았다. 다음이 이를 나타낸 그래프다.

〈그림 4〉 〈중국 비호감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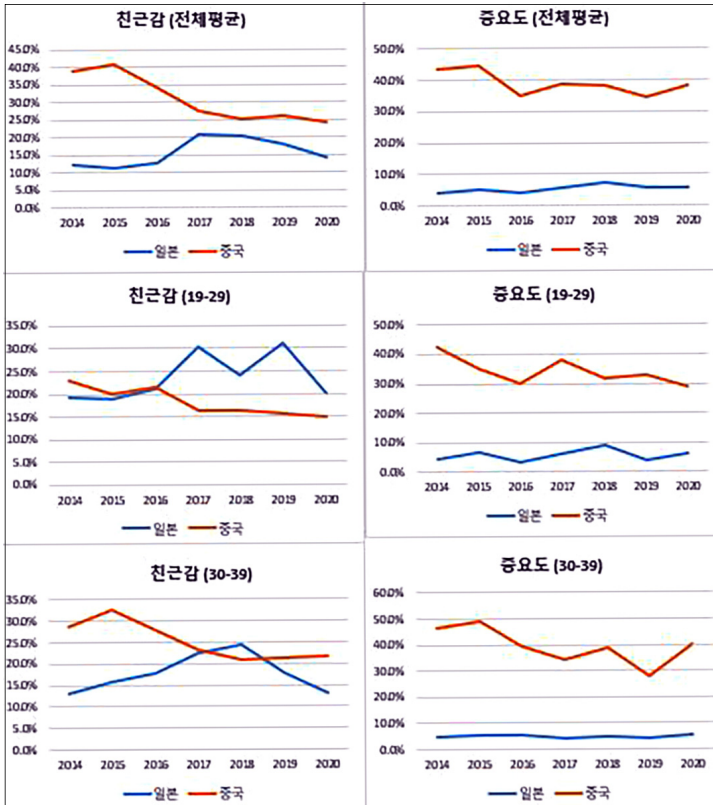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중국 비호감도(‘좋지 않은 인상’)가 20%p 이상 급증했지만, 이는 청년세대만이 아니라 전체 세대에 공통된 보편적 현상이다. 그래프가 직관적으로 드러내듯이, 20대와 30대, 전체평균을 나타내는 세 개의 표시선은 구별이 힘들 정도로 겹쳐있다. 수치상으로도 코로나 팬데믹 직전후인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20대는 53.5→74.2%,

30대는 52.1%→75.6%로 비호감이 급증했지만, 한국인 평균 역시 51.5→73.8%로 급증해 경향과 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즉, 코로나 사태 후 중국 비호감도의 급증은 한국 사회 전반의 추세로, 2030이 기성세대보다 유난히 더 중국을 싫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동아시아연구원의 또 다른 조사결과에 따르면, 앞서 통일평화연구원 조사와 마찬가지로, 30대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인 평균보다 중국에 더 우호적이었다. 즉, 코로나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20대의 중국 우호점수(각 52.1/51.2)는 (코로나 이후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평균(53.2/51.9)보다 낮지만, 30대의 우호점수는 54.1/52.1로 한국인 평균보다 오히려 높다. 이 경우도 20대와 30대 각각과 전체평균 간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다.

다음으로 언론보도처럼 한국의 2030은 주변국 중 중국을 ‘가장’ 싫어하고,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할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 양국을 대상으로, 친근감이나 호감 같은 ‘개인적 감정’과 한반도 평화 및 통일, 국익 등과 관련된 ‘중요도 인식’을 나누어 비교해보았다. 이는 본고의 분석대상인 중국과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비교 인식과도 관련된다. 동아시아연구원은 2014-2020년에 걸쳐 “일본과 중국 중 어느 나라에 더욱 친근감을 느끼는가?”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일본과 중국 중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전자는 개인적 감정, 후자는 중요도 인식을 보여준다. 다음은 이에 대한 연도별 응답 비율을 세대별로 나타낸 그래프다.

먼저 친근감의 경우, 평균적 한국인은 2016년 사드 보복 전후로 중국 친근감이 급격히 감소하긴 하지만, 여전히 일본보다는 중국에 더 친근감을 느낀다. 반면 20대는 2016년 이후 일본의 중국 역전현상, 즉, 중국보다 일본을 더 친근하게 여기는 현상이 확인된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한일 무역분쟁의 여파로 친밀도가 급감하지만, 일본의 역전현상은 유지된다. 하지만 30대는 다르다. 20대와 마찬가지로 30대도 2016

〈그림 5〉 중국/일본의 친근감/중요도 세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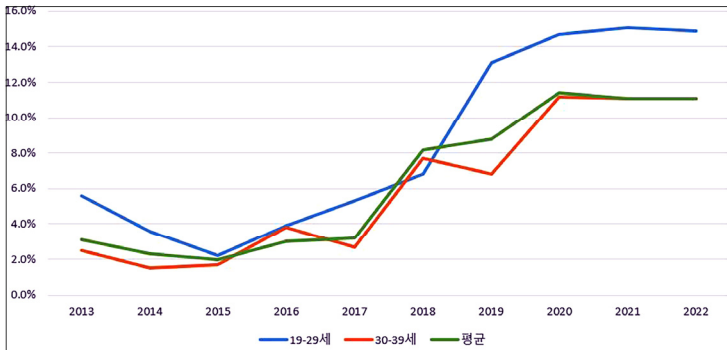


년 이후 동일한 역전현상이 발생하지만, 2019년 중국이 다시 일본을 역전해 코로나 이후로도 유지된다. 결론적으로 (2016년 이후) 20대는 중국보다 일본을 친근하게 여기지만, 30대는 그렇지 않다. 30대의 경우 일본 친근감의 중국 역전은 일시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현상이며, 30대는 20대와 전체평균 사이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패턴이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한편 중요도의 경우 20대와 30대, 전체평균 모두에 있어 중국이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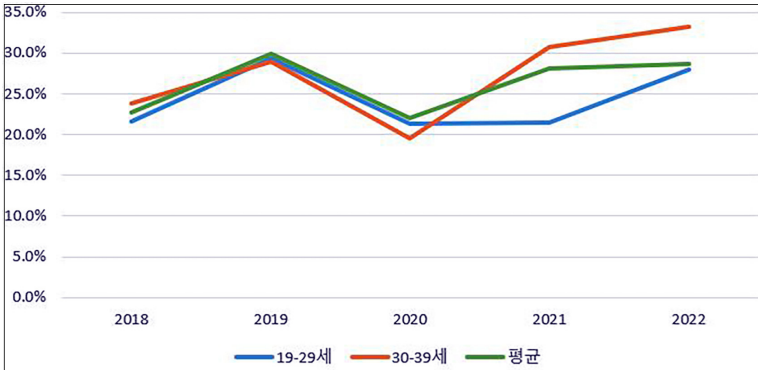
을 압도한다. 중국보다 일본을 더 친근하게 여기는 20대도 중요도 면에서는 중국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친근감과 중요도를 구분해 인식하는 경향은 20대보다 30대에서 더 두드러지고 일관되게 나타난다. 즉, 20대가 중국 ‘친근감’에 있어 ‘부정적으로’ 일관적이라면, 30대는 중국 ‘중요도’에 있어 ‘긍정적으로’ 일관적이다. 이는 다음의 사례들에서 확인된다. 아래 그래프는 『통일의식조사』 중 “중국은 한국에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부정적인 “적대 대상”을 선택한 비율을 세대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중국=적대 대상” 선택 비율



그래프에 드러나듯이, 20대는 10년에 걸쳐 비교적 일관되게 한국인 평균보다 중국에 더 부정적이고,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그 경향은 더욱 크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30대는 팬데믹 이전에는 대체로 평균보다 우호적이었고, 이후에도 평균보다 적대적이지는 않다. 다음은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까?”란 질문에 “도움이 된다”를 선택한 비율을 세대별로 나타낸 그래프다.

〈그림 7〉 “중국 부상=한반도 평화에 도움” 선택 비율



앞선 설문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중요도 인식과 관련된 이 조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30과 전체평균 간 두드러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0대가 20대보다도 중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오히려 팬데믹 이후 30대의 중국 중요도 인식은 빠르게 증가해 현재 한국인 평균을 상회한다. 이러한 경향은 20대에도 적용되어, 2022년 현재 20대의 인식은 한국인 평균에 근접한 상태다. 지면 관계상 다 밝힐 수 없지만, 유사한 패턴이 다른 설문들에서도 반복되었다.

이상을 종합할 때, 20대와 30대 ‘모두’ 주변국 중 중국을 ‘가장’ 싫어하고, ‘중국보다 일본을 더 좋아한다’는 언론보도도, 2030세대가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한다는 주장도 통계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20대는 중국을 가장 싫어하고, 중국보다 일본을 선호하지만, 30대는 그렇지 않다. 20대의 경우 반중 정서가 기성세대보다 크고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30대는 일관되지 않을뿐더러,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기성세대보다 중국에 더 우호적인 경우도 빈번했다. 또, 언론이 기점으로 삼은 팬데믹 이후 반중 정서의 급증은 한국 사회 전반의 추세로, 경향이나 정도에 있어 2030세

대와 한국인 평균 사이의 차이도 언론이 강조한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특히 30대의 경우, 인상이나 정서 같은 개인적 감정과 국가적 중요도를 분리해 인식하는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고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처럼 중국 인식과 관련해 20대와 30대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바, 이를 2030이나 MZ세대의 공통된 특성으로 일반화해서는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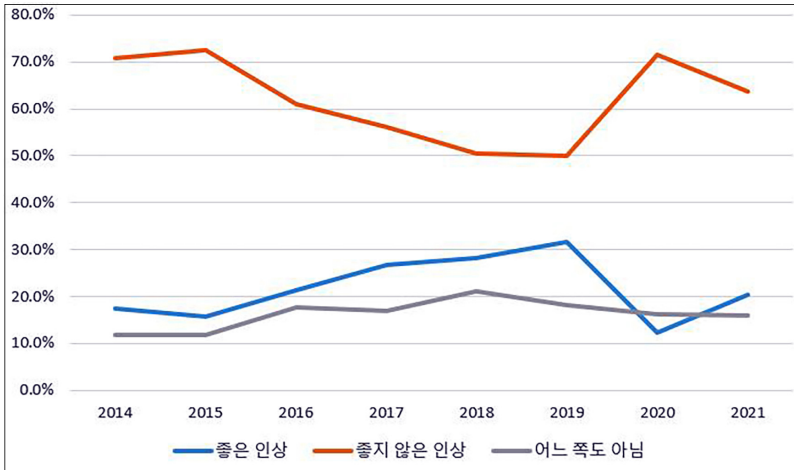
### III. 한국 청년세대의 일본 인식 : 인식의 디커플링과 일상 속 투트랙 전략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식민지배 역사와 관련된 양국 간 특수관계로 인해 반일(反日) 감정은 한국인에게 일종의 상수로 존재해왔다. 수교 이래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었고, 특히 2012년 평화헌법 개정과 보통국가화를 표방한 아베 내각의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험로를 걸어왔다. 물론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단계적으로 이뤄진 한국 내 일본문화 개방, 일본 내 한류 유행 등 활발한 문화교류, 해외여행과 관광을 통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상호 체험 등이 축적된 결과, 한국인의 일본 친밀도가 예전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역사-정치문제의 여전한 파급력은 양국 관계에 엄연한 현실로 존재한다.

근래의 사건으로는 2015년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합의,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이로 인한 양국 간 무역분쟁과 한국 내 광범위한 No Japan 운동 등이 한국인의 일본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기간효과로 작용했다. 특히 강제동원 판결 및 (그 맞대응으로서) 수출규제조치는 이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



〈그림 8〉 한국인의 일본 인식



정(GSOMIA)에도 영향을 미쳐 역사-경제-안보가 밀접히 연계된 복합갈등으로 증폭되었다. 한일 양국이 2019년 이후 ‘수교 이래 최악의 관계’에 놓인 것은 이러한 저간의 상황을 반영한다.<sup>13)</sup> 한국인의 일본 인식의 변화 과정을 장기추적해온 동아시아연구원의 조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림 8〉은 “일본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한국인(전체 평균)의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8년 전(全) 기간에 걸쳐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한국인이 ‘좋은 인상’을 가진 한국인보다 훨씬 많다. 2015년 최고치에 달했던 일본 비호감도는 이후 조금씩 완화되다가 2019년 사건 이후 다시 정점을 찍고

13) 한국인의 일본 인식에 영향을 미친 주요사건에 대해서는 오승희, 「한국 젊은층의 일본관 변화와 문화적 요인 분석: ‘상호 혐오의 악순환’을 넘어」 『日本文化學報』 제87집 (2020), 139~140쪽, 143~148쪽; 석주희, 「한류와 혐오: 청년세대(MZ세대)의 역설」 『EAI 위킹페이퍼』 (2020년 8월 11일), 8~10쪽; 조은일, 「청년세대(MZ세대)가 바라보는 한일 안보관계」 『EAI 위킹페이퍼』 (2020년 8월 11일), 1~2쪽 참조.

현재 서서히 회복되는 중이다. 그렇다면 청년세대의 경우는 어떨까. 위의 결과를 세대별로 구분해 나타내면 아래 그래프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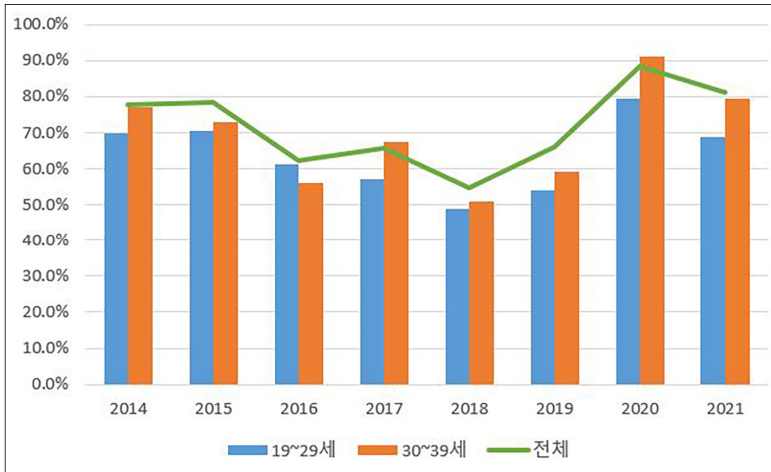
〈그림 9〉 한국인의 일본 인상: 세대별 비교



호감도 변화의 '경향'에 있어서는 2030세대 역시 한국인 평균과 일치한다. 비호감 비율이 호감 비율보다 큰 것도 일치한다. 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프에서 20대는 '좋은 인상'의 경우 평균보다 위에, '좋지 않은 인상'의 경우 평균보다 아래 위치한다. 전체평균과의 차이도 10-20%p 사이를 오간다. 즉, 20대는 한국인 평균보다 일본에 훨씬 더 긍정적이며, 그 결과 심지어 2018년과 2019년에는 '좋은 인상'을 가진 20대(각 38.2%-41.9%)가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20대(37.7%-33.9%)보다도 더 많았다. 이는 전 기간 모든 세대를 걸쳐 유일한, 매우 이례적인 결과다. 한편, 30대는 경향적으로는 20대와 일치하나, 정도에 있어서는 20대와 전체평균 사이에 위치한다.

20대의 높은 일본 호감도는 한일관계의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다음은 동아시아연구원의 조사 중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을 세대별로 비교한 그래프다.

〈그림 10〉 “현재 한일관계=나쁘다” 응답 비율



한국인 평균의 경우, 모든 조사시기에 걸쳐 한일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고, 수출규제조치 직후인 2020년의 경우엔 90%에 육박한다. 하지만 20대의 경우 그 비율은 평균보다 일관되게 낮다. 즉, 한국인 평균보다 (조사 당시) 한일관계에 대해 항상 더 긍정적이다. 30대의 경우도 경향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정도나 일관성에 있어 20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사한 결과가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도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2020년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 ‘더 나빠질 것’이라 응답한 경우, 전체평균이 27.6%였는데 반해 20대는 17.7%로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낙관적이었다. 반면, 30대는 전체평균보다 약간 높은 29.8%로 일관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20대와 30대, 특히 20대가 일본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보인다는 언론의 보도는 통계적 사실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일본을 좋아하는 것일까. 2021년 “일본에 좋은 인상을 가진 이유”를 묻은 조사에서 한국인 평균은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을 1위로, “생활수준이

높은 선진국어이어서”를 2위로 꼽았다. 반면 20대의 경우 1위는 “특별한 이유 없다”, 즉, ‘이유 없이 좋다’였고, 2030대 공히 “일본문화”가 3위에 올랐다.<sup>14)</sup> 2030세대의 일본 호감도가 문화 체험이나 직접 경험을 통한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로 주로 구성됨을 추론할 수 있다.

이제 2030세대의 높은 일본 호감도와 역사·정치문제 간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는 2019년 대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률을 세대별로 정리한 것이다.<sup>15)</sup>

〈표 1〉 대일 정책 우선순위 (2019)

	대법원 강제동원판결에 따른 해법마련	수출규제 조치 등 양 국간 무역분쟁 해소	위안부 등 역사문제 해결	양국 정상간 신뢰관계 회복
19-29세	6.3	18.4	48.1	10.8
30-39세	7.0	24.0	43.9	11.7
40-49세	9.3	33.8	32.8	12.3
50-59세	12.4	32.2	24.8	22.8
60-69세	10.5	32.0	19.7	23.2
70세 이상	24.3	43.2	8.1	10.8

출처: 윤석정, 「청년세대(MZ세대)와 일본국·위안부·문제」, 『EAI 워킹페이퍼』 (2020년 8월 11일), 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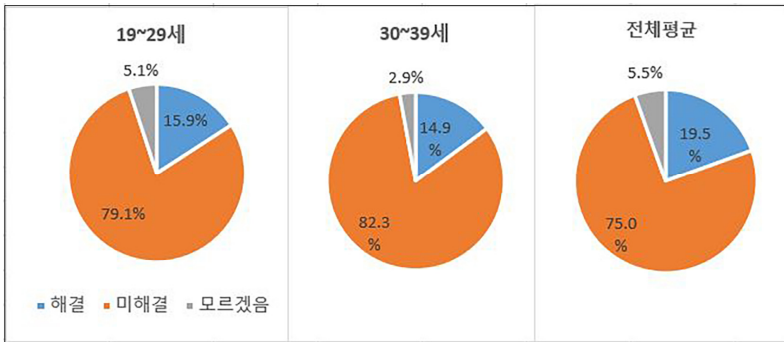
한국 정부가 대일 정책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40대 이상의 모든 세대가 무역분쟁 해소 등의 ‘경제문제’를 꼽은 데 반해, 2030은 위안부 문제 등 ‘역사문제’ 해결을 1순위로 꼽았다. 그 비율은 30대보다 20대에서 더 높았다. 기성세대보다 일본을 더 좋아하는 2030 역시 양국 간 민감한 역사·정치문제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도 인식이 있어서는 오히려 기성세대를 넘어섭이 확인된 것이다.

14)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EAI & 켄론 NPO, 2021).

15) 표의 1항은 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것이고, 강제동원 문제는 3항인 ‘위안부 등 역사문제 해결’ 항목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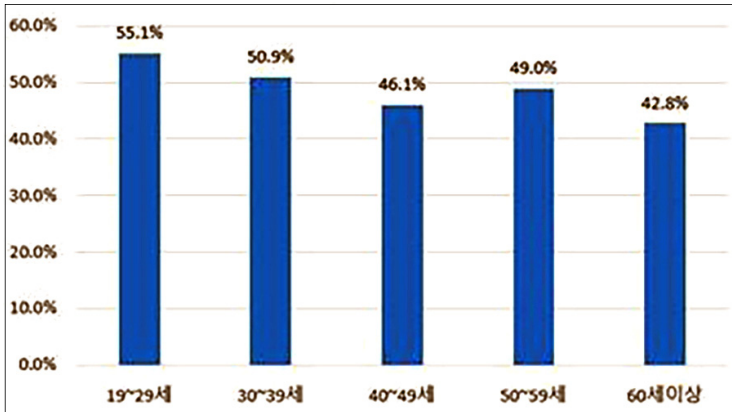
구체적 사례로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살펴보자. 2017년 동아시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해당 합의에 대한 2030의 인식 ‘경향은 한국인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해당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인식의 ‘정도’는 기성세대보다 오히려 높았다 (<그림 11>). 또, 위안부 문제의 해결방안과 관련해 (2015년 합의의 폐기와) 재협상이라는 가장 강경하고 원칙적인 입장이 전(全) 세대를 통틀어 2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그림 12>).

<그림 11>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었는가?”에 대한 응답 비율



위와 유사한 경향과 특성이 다른 이슈들, 즉, 2019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과 무역분쟁 관련 사안이나 영토분쟁 문제(독도)에서도 반복 확인되었다. 이상을 종합할 때, 2030세대의 높은 일본 호감도가 그들의 정치적 무관심의 결과도, 역사문제에 비례 적용되는 특성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청년세대는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이슈 등 역사문제에 대해 기성세대와 비슷한 인식을 보여주거나, 때로는 더 민감하고 원칙적으로 반응한다. 이는 청년세대에 고유한 젠더의식 및 인권 감수성과 무관치 않다. 앞서 한국 청년세대가 중국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국가적 중요도를

〈그림 12〉 20대의 ‘위안부 합의 재협상’ 선택 비율



분리 인식했다면,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정치와 사회·문화를 분리 평가하는 ‘인식의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을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세대는 대일 정책의 핵심으로 거론되어온 ‘정치와 경제, 역사와 문화 간 투트랙 전략’을 일상에서 실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IV. 결론: 세대론의 함정을 넘어서

본문을 통해 한국 청년세대의 중국 및 일본 인식과 관련된 언론 보도의 사실 정합성 여부를 학술기관의 장기조사데이터를 통해 통계적으로 확인해보았다. 먼저, 중국 인식 관련 ‘세대 간 비교’의 경우, 2030세대의 반중 정서는 한국 사회 전반의 추세와 시기적, 경향적으로 일치하며, 그 정도에 있어서도 기성세대 또는 한국인 평균과 미디어에서 주장하는 만큼의 극적인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청년’ 세대 내 비교’의 경우, 중

국 비호감도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일관되게 나타났다면, 30대에서는 뚜렷하지도 일관되지도 않았다. 특히 30대는 감정이나 인상 같은 개인적 감정과 국가적 중요도를 분리해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후자에 있어서는 한국인 평균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평균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러한 차이는 30대의 경우 인구학적 재생산(결혼/출산)과 사회적 재생산(구직/취업) 시기에 본격 진입한 연령대로 20대보다 현실적이고 복합적 판단을 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20대는 한국 대학 내 중국 유학생의 급증으로 인하여 이들과 상시적으로 접촉하게 된 상황이 부정적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국내 대학은 신입생 감소, 등록금 동결, 국가 지원 축소 등으로 인한 재정위기로 중국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왔고, 그 결과 2019년 기준 중국 유학생 수가 7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학점체계, 조별과제 수행의 어려움 등이 야기한 학점 공정성이나 역차별 논란, 홍콩 민주화 시위 같은 현안을 둘러싼 의견 대립, 가치관이나 생활방식, 문화 차이 등 다양한 갈등을 직접 체험하게 된 상황이 주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sup>16)</sup>

결론적으로 중국 인식과 관련해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1) 세대 ‘간’ 차이는 기간효과의 보편성을 압도할 정도로 ‘크지 않은’ 반면, 2) 세대 ‘내’ 차이는 ‘2030’이나 ‘MZ세대’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일반화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20대와 30대 사이에 통약 불가능한 차이가 존재하는바, 이를 간과한 채 두 세대를 뭉뚱그려 ‘2030이 국내 반중을 주도한다’거나, ‘2030은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한편 청년세대의 일본 인식도 한국 사회 전반의 추세와 시기적, 경향적으로 일치하며 기간효과의 영향력 아래 존재했다. 하지만 중국과 달

16) 조의행, 「MZ세대의 반중감정」, 191~192쪽 참조.

리, 20대와 30대 공히 일본 호감도가 한국인 평균보다 높았으며, 20대에서 그 정도가 크고 일관되게 드러났다면 30대는 20대와 전체평균 사이에 위치했다. 따라서 2030세대가 한국인 평균의 대일 호감도 상승을 견인한다는 언론 보도는 통계적 사실에 부합한다. 하지만 청년세대의 높은 호감도가 역사나 정치 영역에 비례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그들이 기성세대보다 일본을 더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감한 역사나 정치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인 평균과 유사하거나, 때로는 더욱 강경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한 경우도 빈번했다. 연령효과가 기간효과를 압도하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통계는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이슈 등 역사문제에 대해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청년세대 고유의 높은 젠더-인권 감수성, 즉, 또 다른 차원의 연령효과가 기간효과와 상승 작용하며 그들의 대일 인식과 태도를 형성함을 추론케한다.

한국 청년세대가 중국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국가적 중요도를 분리해 인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정치와 사회·문화를 분리해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인식의 디커플링’ 현상, 즉, 일본 정부·지도자와 일본 사회·일본인을 구분해 평가하는 것은 최근 한국 사회 전반에 보편적인 현상이긴 하다. 예를 들어, 한일 위기가 고조된 2019년 아베 신조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3%(비호감도 79.3%)에 불과했지만, 일본 사회 전체에 대한 호감도는 31.7%로 열 배에 달했다. “정부와 민간의 디커플링”<sup>17)</sup>이라 명명된 이 현상이 청년세대에게는 역사·정치와 사회·문화 인식의 디커플링 현상으로 최대화된 것이다. 따라서 청년세대는 대일 정책의 핵심으로 거론되어온 ‘정치와 경제, 역

17) 손열 외, 「위기의 한일관계,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제7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 및 <제7회 한일미래대화> 논의 분석」 『EAI 이슈브리핑』 (2019년 6월 28일), 6-7쪽.



사와 문화 간 투트랙 전략을 이미 일상에서 자생적으로 선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학술기관의 장기조사데이터를 통한 검증결과는 미디어가 주장하는 현실과 여러 차원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괴리의 연원은 세대론 자체가 노정하는 한계와 무관치 않다. 세대는 사회변동 포착에 중요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지만, 세대론의 함정도 만만치 않다. 세대 특성을 강조하는 세대론은 같은 세대 내의 차이는 지우고, 다른 세대와의 차이는 키우는 '세대주의(generationalism)'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이는 한 세대의 보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동질화 편향, 세대 간 차이를 절대화하는 배타주의적 경향, 모든 것을 세대문제로 귀착시키는 환원주의적 편향 등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 차이의 과잉표상'은 불필요한 세대 갈등을 유발하거나 때로 조장한다. 세대론 생산의 3대 주체가 '언론, 기업, 정치권'인 점도 이와 관련이 깊다. 언론은 이슈메이킹, 기업은 소비자 타겟팅, 정치권은 유권자 헌팅을 위해 세대 담론을 적극적으로 생산, 유포한다. 삼자의 목표에는 차이를 부각하고 편을 가르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다. 이들이 세대론에 적극적인 이유이자, 이를 경계해야 할 이유기도 하다.<sup>18)</sup>

특히 한국의 경우 이는 더욱 문제적이다. 한국은 위 세 요소 중 언론과 정치의 긴밀한 연동이 두드러지며, 이 연쇄가 주변국 인식까지 수렴해 세대주의의 골을 더욱 확대, 심화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조중동-정치적 보수-친미/반중', '경향 및 한겨레-정치적 진보-반미/친중'의 연쇄가 그

18) 세대주의 비판에 대해서는 박재홍,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사회』 통권 제81호 (2009년 봄호), 11~31쪽; 전상진,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31~49쪽; 김선기,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사회』 제17권 (2014), 207~240쪽; 박치완, 「세대론의 르네상스와 '디지털 원주민 세대'의 이해」, 8~38쪽 참조.

것이다. 이 3중 연쇄는 주변국 인식에 나타나는 세대 내 차이를 함부로 기각하거나, 세대 간 불필요한 차이를 발명한다. 그 결과 특정 세대의 특성이 과대 표상된다. 외부와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내부의 차이를 덮는 세대주의의 가장 큰 위험성은 그것이 자주 현실의 (의도된) 오인이나 왜곡으로 귀착된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앞서 확인한바, 중국 관련 한국의 20대와 30대 사이에도 청년 세대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기각될 수 없는 다양한 차이와 균열이 존재한다. 이 차이의 의미는 신중하게 숙고되고, 발전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언론의 반복되는 보도를 통해 마치 한국의 젊은 세대 전체가 ‘반중 전선의 전위부대’인 것처럼 각인되는 상황은 한중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무엇보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한국 청년세대의 일본 친근감, 이에 기반해 그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실현된 투트랙 전략을 최대 위기에 놓인 한일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청년세대의 중국 및 일본 인식의 특성을 세대 간, 또는 세대 내 차이와 유사성 속에 신중하게 포착해 해당국 대상 외교 정책에 유익한 참조점을 얻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접수: 2023년 1월 21일 / 심사: 2023년 3월 1일 / 게재 확장: 2023년 3월 6일

**【참고문헌】**

- 김효정, 『MZ세대가 쓴 MZ세대 사용설명서』, 서울: 넥서스BIZ, 2022.
- 김선기,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사회』 제17권, 2014, 207~248쪽.
- 김성희, 「세대 간 통일의식 차이」 『기रो에 선 평화, 다시 묻는 통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2 통일의식조사 학술회의, 2022년 9월 27일.
- 김정은, 「'짱깨'와 '빵즈'의 간극: 'BTS 논란'을 통해 나타난 한·중 문화교류의 '사상누각」 『韓中言語文化研究』 第59輯, 2022, 235~260쪽.
- 박시내, 박혜균, 「MZ세대의 생활 환경: 생활비 원천, 주거실태」, 『KOSTAT 통계플러스』, vol. 17, 2022 봄호, 32~47쪽.
- 박재홍,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사회』 통권 제81호, 2009년 봄호, 10~34쪽.
- 박재홍,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제24권 2호, 2001, 47~78쪽.
- 박치완, 「세대론의 르네상스와 '디지털 원주민' 세대의 이해」 『문화콘텐츠연구』 제16호, 2019, 7~43쪽.
- 석주희, 「한류와 혐오: 청년세대(MZ세대)의 역설」 『EAI 워킹페이퍼』, 2020년 8월 11일.
- 손열 외, 「위기의 한일관계,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제7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 및 <제7회 한일미래대화> 논의 분석」 『EAI 이슈브리핑』, 2019년 6월 28일.
- 양승훈, 「MZ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철학과현실』 제132호, 2022, 77~94쪽.
- 오기성, 「MZ세대 통일의식 제고 방안 연구」 『평화학연구』 제23권 2호, 2022, 79~101쪽.
- 오승희, 「일본의 MZ세대가 바라보는 세계와 한국: 나다움, 가치소비, 공감연결」 『지식의비평』 제32호, 2022, 1~20쪽.
- 오승희, 「한국 젊은 층의 일본관 변화와 문화적 요인 분석: '상호 혐오의 악순환'을 넘어」 『日本文化學報』 제87집, 2020, 139~158쪽.

- 윤석정, 「청년세대(MZ세대)와 일본국'위안부'문제」 『EAI 워킹페이퍼』, 2020년 8월 11일.
- 전상진,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세대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 사회학』 제38집 5호, 2004, 31~52쪽.
- 조은일, 「청년세대(MZ세대)가 바라보는 한일 안보관계」 『EAI 워킹페이퍼』, 2020년 8월 11일.
- 조의행, 「MZ세대의 반중감정: 그 현황과 전망」 『역사와융합』 제10집, 2022, 175~208쪽.
- 차정미,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변화와 그 요인」 『아세아연구』 제60권 2호, 2017, 10~45쪽.
- 하남석, 「중국의 청년 세대: 애국과 소비의 주체를 넘어서」 『지식의비평』 제32호, 2022, 1~15쪽.
- Kertzer, D.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9 (1983), pp. 125-149.
- Prensky, M.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1" On the Horizon, vol. 9, no. 5 (2001), pp. 2-6.
- 권민지, 「가장 싫은 나라 중국, 북한은 남...MZ세대 모든 것」 『국민일보』 (온라인), 2021년 6월 25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7855>>
- 김서윤, 「586은 반미, 우리는 반중! MZ세대의 중국 혐오를 키운 것은?」 『주간조선』 (온라인), 2021년 5월 24일,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76>>.
- 박현주, 「한국인 "일본 싫다" 8%p 줄고 "중국 싫다" 14%p 증가」 『중앙일보』 (온라인), 2021년 9월 29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0516>>.
- 이오성,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 누굴까」 『시사IN』 (온라인), 2021년 6월 17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21>>.
- 유지혜, 정진우, 박현주, 「2030 열명 중 여섯 “中 싫다”...미래세대 반중감정 치솟았다」 『중앙일보』 (온라인), 2021년 1월 19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1759>>.
- 조영빈, 「한국인, 日 가장 혐오' 통념 깨진다...2030세대 “中이 더 싫다”」 『한국일

보』(온라인), 2021년 6월 14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1311510002670>>.

조영빈, 「한중수교 30주년: 한국·중국은 왜 서로를 더 싫어하나...양국 MZ에 물었다」 『한국일보』(온라인), 2022년 8월 23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523100002978>>.

최은미, 「MZ세대와 韓·日관계」 『세계일보』(온라인), 2022년 1월 6일,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106515175?OutUrl=daum>>.

Pew Research Center, “Unfavorable Views of China Reach Historic Highs in Many Countries” (October 2020),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0/10/06/unfavorable-views-of-china-reach-historic-highs-in-many-countries/>>.

\* 통계 데이터

동아시아연구원 & 켄론 NPO,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2013-202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2007-2022).

## Korean Younger Generation's Perception of China and Japan : Focusing on the Fact-checking of Korean Media Reports

Lee, Moonyoung(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work aims to statistically confirm whether the media reports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China and Japan in the 2030 generation of Korea are in accordance with the facts through the analysis of long-term survey data of academic institutions, IPUS's *Unification Perception Survey(2007-2022)* & EAI and Genron NPO's *Survey on Mutual Perceptions of South Korea and Japan(2013-2021)*. The anti-Chinese sentiment of the 2030 generation coincided with the overall trend of Korean society in terms of timing and tendency, and did not show a dramatic difference from the older generation in terms of degree. While unfavorability toward China was prominent and consistent amongst the 20s, there was a strong tendency to recognize personal emotions and importance separately in the 30s. It turned out that the difference between generations was smaller and the difference within generations was larger than those claimed in media reports. Meanwhile, Koreans in the 20s and 30s showed a higher level of favorability for Japan than the average Korean. While the extent and tendency were large and consistent among the 20s, those in their 30s were located between

the 20s and the average. However, despite the high favorability, it can be said that the 2030 generation is taking a “two-track strategy” in their daily lives, for the younger generation often maintained a tougher position than the older generation in historical and political issues. The results show a considerable difference from the reality claimed by the media, and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generationalism that cause this gap.

Keywords: younger generation, 2030 generation, perception of China, perception of Japan, Unification Perception Survey, Survey on Mutual Perceptions of South Korea and Japan

**이문영 (Lee, Moonyoung)**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 노어노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모스크바국립대학에서 M. 바흐친의 대화주의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러시아와 한반도 평화, 인문학과 평화학을 연결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